

에베소서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와 기독교 윤리

윤 경 숙*

논문초록

본 연구는 기독교 윤리에 대한 성서적 개념을 신약의 에베소서를 통해서 정립하고자 한다. 계몽주의 이후 이성적인 존재로서 개인이 도덕 윤리의 결정자가 되었고, 나아가 포스트모던 시대의 개인주의와 다원주의로 인해 윤리적 준거점이 사라진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윤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성서적 해석과 함께 많은 윤리적 도전들에 대해 책임질 것을 요청받는다. 본 연구는 성서적 관점에서 윤리를 다루는데 있어서 인간의 어떤 외면적 행위를 단순히 강조하거나 성경 본문 가운데 윤리적 행위에 대한 범주들을 종합해 놓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윤리의 기초를 제공하는 근원과 실천적 맥락을 이해하고자 한다. 기독교 윤리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와 분리될 수 없다. 왜냐하면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이며, 그 나라의 특성이 그 윤리적 내용을 규정짓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독교 윤리를 ‘하나님 나라(the Kingdom of God)’의 본질적 특성과 연관하여 인간의 윤리적 기초와 실천적 맥락, 그리고 그 목표에 대한 성서적 관점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주제어: 하나님 나라, 기독교 윤리, 새 사람, 그리스도의 형상

* 전주대 강사

2012년 01월 30일 접수, 03월 11일 최종수정, 03월 21일 게재확정

I. 서론

인간은 살아가면서 매순간 윤리적 결정을 요구받는 상황에 직면한다. 그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는 곧 각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한 표출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인간은 왜 선한 것을 추구하고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기에, 인간으로써 마땅히 행하여야 할 윤리가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일은 바로 인간이 무엇인가라는 그 정체성과 존재 가치를 규정하는 일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인류 역사를 통하여 인간은 언제나 인간으로써 마땅히 행하여야 할 윤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부단히 씨름하며 탐구해왔다. 성경의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도 인간의 윤리적 행위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윤리’가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임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 윤리를 포함하여 인간 윤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역사적 시기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고대 사회에서는 인간 윤리에 대한 근원적 질문이 어떤 윤리가 공동체와 사회에 유익한가에 기초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와 사회에 유익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으로 간주되었고, 미덕(virtue)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았다. 중세에는 개인의 의지나 생각보다 사회의 공공영역, 국가와 같은 다양한 권위적 제도들에 의해서 인간 윤리가 무엇인지 규정되었다. 그 중 교회는 가장 큰 권위적 제도중의 하나로서 인간 윤리의 내용을 규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Mouton, 2002: 204-206).

한편, 이성과 과학을 신봉하는 계몽주의 이후의 현대 사회에서는 모든 인간이 자신이 무엇을 믿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이성적인 존재로 간주되면서 개인이 도덕 윤리의 결정자가 되었다. 따라서 계몽주의 이후 현대 사회에서는 윤리 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일치된 의견, 도덕적 동의를 가지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핵 시대로 들어선 현대 과학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이전 시대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윤리적 과제들이 주어지면서 현대 사회는 심각한 윤리적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포스트모던 시기에 이르러서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어떤 형태의 지배와 규칙도 수용하지 않고 인간 외부의 어떤 제도적 힘과 전통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윤리적 준거점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Grenz, 1997: 19-20).

이러한 사정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기독교 윤리가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함께 많은 윤리적 도전들에 대하여 책임질 것을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약 성서 중 윤리적 강령과 미덕에 대한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책들 중 하나인 에베소서에 기초를 두고 기독교 윤리에 대한 가르침에 접근하고자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인간 윤리를 다루는데 있어서 인간의 어떤 외면적 행위를 단순히 강조하거나 성경적 본문을 해석하는 가운데 윤리적 행위에 대한 범주들을 종합해 놓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독교 윤리에 대한 연구는 인간의 외면적 행위들을 유형적으로 분류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것은 그리스도인, 나아가 모든 인간의 윤리적 기초를 제공하는 근원과 그 실천적 맥락과 목표를 이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 나라(the Kingdom of God)’에 대한 이해와 불가피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즉 그리스도인들이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그 나라의 윤리를 규정짓기 때문에, 기독교 윤리에 대한 연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먼저 이해되어야 하며, 그 나라가 갖는 근본적인 구조와 그 역동적 특성과 관련하여 기독교 윤리를 논의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윤리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분의 가르침과 불가분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복음서에서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신약 성서에서 윤리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 또한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백성들이 변화 성장해가는 성화(sanctification)에 관한 그의 신학적 직설법과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에베소서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와 기독교 윤리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에베소서에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그 특성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적 행위의 근거와 목적, 그리고 그것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규정짓고 이끌어 가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가 인간으로서 정체성과 그 윤리적 동기와 목적을 발견하게 함으로써 이 윤리적 위기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데 하나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II. 하나님 나라와 윤리에 대한 일반적 배경

1.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반적 고찰

신약 성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데 절대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그리스도인은 물론, 많은 신약 학자들도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하는 것에는 당혹스러움을 드러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Stassen & Gushee, 2003: 19).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 것은 사실이지만, Caragounis (1992)에 의하면 두 가지 주요 개념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하나님 나라의 특성(character)과, 둘째, 그 나라의 임박성(imminence)이다. 이 두 가지 개념은 상호 연관된 것이며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 나라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논의에 핵심적 이슈가 되어왔던 것이다(p. 420).

먼저, Caragounis(1992)는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 속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 자신의 관점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미래의 메시아에 대한 언약은 물론, 묵시적 유대주의(apocalyptic Judaism)¹⁾와도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지적한다(p. 418). 그러나 예수님의 개념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또한 그것을 넘어서고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지리적 실체(geographical entity)’로만 그려지지 않고 오히려 그 본질에 있어서 역동적이라는 것, 둘째, 그것은 ‘인자(the Son of Man)’로서의 예수님의 정체성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 셋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유대인에게만 제한되거나 유대인의 언약에 기초하지 않고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 미래의 막연한 시점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definite) 임박한 것(forthcoming)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서 있다. 예수

1) 구약에서 야훼 하나님은 ‘왕’으로 제시되고 있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래의 메시아도 ‘왕’의 모습으로 올 것이라고 믿었다. 묵시적 유대주의에서도, 야훼는 약한 자를 심판하시고 정의로운 자에게 상을 주는 자로 그려지고 있다. 또한 하나님의 왕국과 그것의 수행자(agents)는 초월적인 존재, 즉 천상의 존재로 받아들여지면서, 그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역동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Caragounis, 1992: 418).

님은 유대의 묵시론자들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노력에 의해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사회의 대격변이나 재앙을 따라 나타나는 것만이 아니라 부드럽고도 조용하게, 그리고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임하는 것을 또한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 묵시론자들과는 다른 면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Caragounis, 1992: 420).²⁾

하나님 나라의 ‘시간적(temporal)’ 속성에 관해서는 신약 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의들이 있어왔다. 혹자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미래적인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또 다른 이들은 온전히 현재적인 것으로 파악했다. 철저한 종말론(Consistent Eschatology)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미래적인 것으로 파악했다. 따라서 ‘때가 왔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 나라의 그 힘과 징조가 느껴질 수 있을 만큼 그 나라가 아주 가까이 임박하였지만, 하나님 나라 그 자체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며 미래적인 것임을 강조한다고 믿었다. 또 다른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미래가 아니라 언제나 이미 도래한 종말론(a realized eschatology)이었다고 주장한다(Ladd, 1974: 120).

그러나 학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간적 특성에 대해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합의점은 있었다.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나타난 우선적인 메시지가 “이미 시작되어진 하나님 나라(inaugurated kingdom), 즉 예수님 자신의 삶과 사역 속에 이미 시작되어진 나라, 그러나 그 나라는 미래에 완성(consummation)을 기다리고 있는 것(Kreitzer, 1993: 524)”이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person) 안에서 이 땅 위에 이미(already) 도래하였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not yet come) 것이다.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서의 구속적 사역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는 역사의 마지막 날에 완전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Ladd, 1974: 123).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마지막에 종말적 완성이 나타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사역을 통해 이미 우리 인간 안에 역동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예수님께서서

2)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큰 혼란과 재앙과 함께 임하리라는 것이 보이고 있지만(마태복음 24장 이후),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지금 우리 안에 임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묵시적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과는 구별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Caragounis, 1992: 420).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이 땅 위에 임하고 있는 것을 보여 주고 계셨던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권능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메시아 사역의 핵심적 요소였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중재하심 역시,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의 증거가 되었다. 이러한 성령의 사역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비록 복음서에서는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진 않지만, 사도행전과 바울의 서신서들 안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Bock, 2001: 45-48).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었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바울의 서신서들 안에서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있는 것은 흥미롭다. 비록 사도 바울의 전체 사교 안에서 하나님 나라 개념이 분명 중요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편지글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게 언급되고 있는 것은 보기 드물다(Kreitzer, 1993: 524).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빈번한 언급보다 바울은 성령에 대해 더 자주 언급하고 있다. 즉,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는 성령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강조된 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 안에서는 성령의 사역이 더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종말적 능력이 현재 역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공동체의 삶에 우선적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Cho, 2003: 197). 따라서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삶”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삶(Kreitzer, 1993: 525)”으로 표현된 것처럼, 성령의 사역이 바울 서신서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논의에 본질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2. 하나님 나라와 윤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인간의 윤리적 행위와 아주 많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 나라와 윤리와의 관계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와 윤리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이 있으나, 크게는 두 가지 범주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 그룹은 윤리를 종말론과 관련지어서 생각하지 않고, 단지 현재의 개인적 도덕성(morality)을 규정하는 것에만 관련지어서 보고 있다. 예를들면, 전통적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 진리를 개인적인 종교적, 윤리적 범주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본질이 되는 알맹이는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것이며, 묵시적이고 종말적인 내용은 가르침의 본질이 되는 알맹이, 즉 윤리적 내용을 감싸고 있는 단순한 껍데기일 뿐이라고 간주한다.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윤리와 종교는 하나라고 믿으며,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본질적 특성이라고 믿었다(Ladd, 1974: 279).

이러한 관점은 전통적 자유주의를 따르는 학자들의 연구들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Marshall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든 윤리적 가르침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통치 아래 들어갈 때에 반드시 행하여야 하는 행위들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Manson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은 종말론과는 상관없는 단순한 종교적, 윤리적인 것이며, 이 윤리적 내용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믿었다. Dodd의 ‘이미 도래한 종말론’ 또한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주로 현재에 하나님 나라와 함께 이미 세상의 종말을 경험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며, 세상의 마지막을 기대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예수님의 윤리는 절대적으로 도덕적 개념, 또는 모든 시간을 관통하는 근원적이고도 종교적인 원칙들이라고 보는 것이다(Ladd, 1974: 279-280).

두 번째 그룹의 관점은 윤리를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즉, 랍비들의 가르침을 받은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에 순종할 때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던 것처럼, 이 관점을 따르는 학자들에게 윤리적 실천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방편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율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인간의 선택에 달린 것이 된다(Ibid, 163).

Bultmann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개인의 실존적 결단을 강조함에 따라 종말론 자체 보다는 윤리에 더 무게를 두고 있으며, 윤리를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들로 제시하고 있다(Chilton and McDonald, 1987: 6). Schweitzer는 예수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정해진 시간에 도래할 것이라고 기대했었지만 그것이 실패하였다는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나라를 도래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고난을 선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있는 윤리란 현재의 하나님 나라와 미래의 나라 사이에 있는 짧은 중간 기간을 통치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이 중간시기의 한정적(interim) 윤리는 비상시에 필요한 윤리들로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개와 도덕적 새로워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Ibid, 7).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윤리적 활동의 산물이 아니며, 동시에 윤리를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보아서도 안될 것이다. 오히려 윤리적 실천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도래한 증거로 보아야 한다(Braaton, 1974: 110). 하나님 나라의 임재는 하나님의 통치가 역동적으로 임했다는 것을 말한다. 즉,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새로운 방법으로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는 결코 성취할 수 없는 것이며, 오로지 하나님의 역동적 행위에 의해서만 도래하는 것이고, 그 결과 인간은 변화된 삶으로서의 윤리적이고 도덕적 삶을 실천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윤리는 그의 백성들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인성과 사역 속에서 이미 분명하게 나타났으나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그 완성됨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Ladd, 1974: 144). 이것이 신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윤리에 대한 가르침이다.

III. 에베소서에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특성

하나님 나라와 윤리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기독교 윤리와 관련된 바울의 신학에도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다. 윤리를 다루는데 있어서 바울은 그것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도들의 새로운 삶과 연관지어고 있다. 바울에게 있어서 ‘새로운 삶(the new life)’ 또는 ‘새로운 피조물(a new creation)’이라는 개념이 갖는 급진적 함축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그 새로운 삶이 지금 이 세대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함께 실제적으로 제시된다고 믿는 것이다. 바울에게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성도들에게 윤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바울 서신서 안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즉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경험한 주의 백성들에 대한 윤리적 요청은 그의 편지글 대부분에서 나타나는 ‘직설법과 명령법’이 갖는 구조적 독특성에서 두드러진다(Mott, 1993: 269).

1. 에베소서의 배경과 구조

성경에 나타나는 사상을 두 가지 범주로 나눈다면 ‘신학’과 ‘윤리’로 나누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신학은 하나님 자신과 이 세상에서 그분의 일하심에 대해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라면, 윤리는 그러한 이해에 대한 인간의 반응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Hurst, 1992: 210). 에베소서도, 비록 두 부분이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대개는 1장-3장 그리고 4장-6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O'Brien, 1999: 66). 1-3장까지는 찬양, 감사, 중보기도, 그리고 믿음에 대한 고백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종종 에베소서가 던지는 메시지 중에 “신학적, 기독교적, 성령론적, 교회론적 서술(indicative)(Mouton, 2002: 55)”을 이루는 부분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4-6장은 첫 번째 부분에 의한 결과론적 내용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것은 첫 부분에서 제공되는 신학적 내용과 근본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이 두 번째 부분이 일반적으로 에베소서의 메시지 중에 “마땅히 행할 바를 말하는 명령(imperative)(Ibid, 54-55)” 부분으로 간주 된다. 첫 번째 부분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만물이 완성되는 그 궁극적 목표와 함께 설명해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 윤리적 명령에 대한 바울의 직접적 호소는 첫 부분에서 제시된 신학적 선언, 즉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O'Brien, 1999: 67). 바울은 명령법으로 제시되는 윤리적 행위에 대한 격려를 위해서 먼저 신학적 기초를 서술적 형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Ridderbos, 1975: 253).

바울의 서신서들 중에서 에베소서는 이것을 쓰게 된 상황적 배경이 가장 적게 드러난 책이다. 이것은 바울이 이 편지 속에서 에베소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는 실제적인 필요와 문제들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단순히 에베소서가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이 보여주고 있는 긴급한 문제들에 대한 반응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 이점이 학자들로 하여금 이 편지가 써지게 된 유래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게 만드는 이유이다. 하지만 바울이 이 글을 쓴 유래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 중에서도 몇 가지 공통적인 관점은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이 편지의 수신자로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신도들도 포함되고 있다는 점, 둘째, 어떤 특정한 위기나 문제가 제시되고 있지 않다는 점, 셋째, 바울이 제시하는 복음의 긍정적인 측

면이 보여진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신자들은 성도들 간에 하나로 연합됨과 믿는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훈계를 받아야만 했다는 것이다(Arnold, 1993: 245).

이러한 점에 기초해볼 때, 에베소서 6장 기록된 경위와 그 목적은 다음과 같은 맥락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에베소에서 바울의 사역이 끝나고, 그곳에 있던 교회들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먼 지역까지 나아가 복음 전도를 시도했다. 에베소의 이방인 성도들은 그 지역의 신비스러운 종교나 마술과 같은 종교적 환경에서부터 기독교인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바울 자신으로부터 전수되는 복음에 대한 견고한 기초가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에베소 교회에 이방인 신도들이 많이 유입됨에 따라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상당한 긴장이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바울은 편지를 읽을 독자들이 공유하는 이러한 일반적이고 다양한 필요들을 다루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Arnold, 2002: 304-305).

2. 에베소서 6장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어들

신약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급이 다양한 맥락들 속에서 등장한다. Ladd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는 통치, 다스림, 또는 지배를 나타내는 추상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그것은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이 들어가게 될 미래의 종말론적 질서에 대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동시에 현재에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다스리고 계시는 영역 또는 구역으로도 인식된다(Ladd, 1974: 123). 비록 ‘하나님 나라’라는 관용구가 에베소서 5장 5절에 단 한번 밖에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 신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주요한 주제들이 에베소서 전체에 잘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1)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in Christ)’에 있는 현재적 구원(엡 1:3-14)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들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구속적 목적은 유일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사역 안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주제의 중심이

된다. 그리고 새 언약적 구속의 축복은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은 메시아적 다윗 왕의 오심(Moore 2004: 92)”을 통해 실현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와 관련될 때, 그것은 구원의 문제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구원과 관련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는 특성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그 특성을 이해하는데 핵심적 요소가 된다.

누가복음 4장 18-19절에 예수님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눅 4:21)”고 말씀하시며 듣는 자들을 놀라게 하였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 속에서 이미 성취된 것이다(Ladd, 1974: 111).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첫째 조건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마 4:17; 막 1:15)”이다.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전제 조건이었다(마 18:3; 막 10:14).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좋은 소식이었던 것이다(Caragounis, 1992: 424).

에베소서 1-3장에서 바울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에베소서에서 ‘새 사람(the new self)’이라는 개념 안에서 설명되고 있는 이 구원의 경험은 각 사람이 생명을 주는 영,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것으로 가능해진다. 이러한 신학적 의미는 바울 서신서에 가장 빈번하게 쓰이고 있는 ‘주님 안에(in Christ)’라는 관용구 속에서 함축적으로 드러난다. 즉,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 즉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인 것이다(Mouton, 2002: 59). 이 관용구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강조는 구원 사역에 있어서 그의 탁월한 역할과 지위를 드러내는 것이다. 동시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적 사역이라는 관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의 현재적 상태나 지위를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도 사용되었다. 이때는 그리스도의 주되심 아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강조할 때 사용되는 것이다(Seifrid, 1993: 436).

바울이 사용하는 ‘주님 안에’라는 이 관용구는 에베소서 안에서 “그분 안에(in Him)

(엡 1:4, 13),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through Him)(엡 1:5)”, 그리고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in the Beloved)(엡 1:6)”로도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표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기독교론적인 언급들은 결국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재확인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자신이 그분 안에 속하였는지 그 위치를 재점검하고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Mouton, 2002: 59). 따라서 ‘주님 안에’ 라는 이 관용구는 본질적으로 구원론적이며, 기독교론적인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2) 오직 은혜로만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엡 2:7-9)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인간 노력의 성취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이해되었다. 바울 역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엡 2:7-8).”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인간 편에서의 어떠한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적 사역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믿음으로(by faith)(엡 2:8)”라는 구절은 “은혜를 인하여(by grace)(엡 2:8)”라는 구절과 분리될 수 없다. 왜냐하면 두 개념은 하나님의 구원적 사역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개념과 어떤 형태의 인간 노력에 대한 가정들을 대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구원을 받은 인간들의 반응을 나타낸다. 만약에 구원의 기초가 하나님의 은혜라면, 구원은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믿음 그 자체도 구원을 이루는 공적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여 놓으신 것들을 받아들이는 반응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오직 믿음에 의한 구원이라는 주제는 바울의 다른 서신사에서 나타나는 의인이 되는 것(justification)과 관련하여 선포되고 있다. 즉,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

과 같은 것이다(롬 3:24). 우리는 그것을 율법적 노력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갈 2:16; O'Brien, 1999: 174-175).

구원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임을 강조하는 것은 구원이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 획득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간주하려는 인간의 보편적 성향을 깨뜨린다. 실제로 인류 역사에 나타난 모든 종교들 안에서 인간들은 구원을-이 구원이 그들에게 무엇으로 이해되든지 간에-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 유대주의는 종종 구원에 이르기 위해 율법을 지킬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은 신실하게 미사에 참석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중요한 한 방법이라고 믿는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구원이 인간이 무엇을 행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Morris, 1994: 54-55). 이러한 성향이 Bultman과 Schweitzer 같은 학자들처럼 인간의 윤리적 행위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수단이나 조건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구원은 그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될 수 없다.

(3) 변화를 가져오는 주체로서 성령님(엡 1:13; 2:18, 22; 3:16)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것은 성령이 중생, 즉 믿는 자들이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의 궁극적 동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에베소서에서 바울 또한 성령님이 회심과 중생을 가져오는 주된 동인임을 강조하고 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성취는 약속된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인치심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엡 1:13),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은 유대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성령 사역으로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진 것임을 강조했다(엡 2:11-22).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그들의 구원을 인치심으로써 그들 또한 유대인과 똑같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기업을 가질 수 있음을 확신하도록 했다. 이전에 유대인들이 믿을 때 성령께서 인치신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성령은 또한 이방인들의 구원을 확증하셨다는 것이다. 여기서 '믿다(believe)'에 쓰여진 동사의 형태는 사도행전 19:2

에서의 용법과 같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을 방문했을 때,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묻고 있다. 이때 ‘믿다’라는 동사의 시제는 분사 형태로서 ‘이미 믿었다’의 현재완료 또는 ‘지금 믿고 있다’는 진행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이미 믿었거나 현재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어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서 인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Bruce, 1984: 264). 여기서 바울은 복음을 듣고 믿는다는 것과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연관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에베소서 1장 14절은 성령에 의해서 인치심을 받은 이방인들이 이제는 하늘 기업을 보증받게 된다고 말한다. ‘보증하다(guarantee)’는 단어는 “계약금을 받으므로 이미 계약이 성립한 것(downpayment)’ 또는 ‘담보로 확실한 약속을 받은 것(pledge)’(O’Brien, 1999: 120-121)”을 내포하는 것으로, 신약 성경에서 바울 서신서에만 쓰이고 있으며, 언제나 성령과 연관하여 사용되고 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의하면, 고린도의 성도들은 미래에 그들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보증’을 성령으로부터 받는다. 즉,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성도들의 염원은 그들이 성령으로부터 이미 ‘보증’을 받았다는 사실에서 온다(Ibid, 121). 성도들의 심령과 삶에 행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의해, 그들은 지금 현재에 그 영원한 소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새로운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엡 2:18). 성도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이후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을 지켜가는 과정에 그들의 내면적 자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성장하게 하는 이는 다름 아닌 성령님인 것이다(엡 3:16).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The Spirit of God)은 이 세상을 창조하고, 구속하며, 그것을 유지시키고, 인간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움직임, 그 자체이다. 그러한 하나님의 활동 안에서 성령님은 인간을 구속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며, 이 인간의 구속 사역이 성령의 사역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사역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부활을 통해 궁극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역동적 에너지이며,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들의 새로운 삶을 창조하고, 이것이 결국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윤리적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내는 것이다(Stacey, 1956: 130-131).

(4) 계속되는 영적 전쟁(엡 6:10-20)

하나님 나라의 임재(presence)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속에 하나님의 역동적인 통치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하나님의 역동적인 능력의 나타나심은 예수님의 가장 보편적인 사역 중의 하나였던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마 12:28). 열두 제자들과(막 6:7) 칠십인 제자들의(눅 10:17) 사역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역동적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축사 사역은 하나님의 종말론적 통치(eschatological reign)가 이미 시작됨으로써 역사 안에 이미 우주적인 싸움이(cosmic struggle) 시작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Ladd, 1974: 150).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이스라엘의 대적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들의 패배로 이해되어졌다. 또한 종말적 전쟁에 대한 주제는 종종 이스라엘의 예언들안에서도 보인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 그 예언적 소망은 군사적 갈등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영적 전쟁이라는 의미로 재해석되었다. 종말론적 사건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사단과 마귀들이 영원한 불에 떨어져 멸망하는 것을 의미한다. 빛과 어둠, 선과 악,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이라는 구조는 예수의 가르침의 기본적 요소들 중 하나였다(Ibid, 150).

에베소서의 전반부(1-3장)에도 그러한 상호갈등적인 주제들이 연결되어 등장하고 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10-20절에 서술된 영적 전쟁은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과 어둠의 ‘능력들(the powers)’이 여전히 일하고 있는 악한 세대, 즉 지금 현재 성도들이 살고 있는 이 세대 간의 갈등을 강조한다. 이 능력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멸하신 것이다(엡 1:21; 3:10). 그러나 그러한 능력들은 여전히 불손종하는 자들과(엡 2:2)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져가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여기서 ‘능력(power)’이라는 용어는 유대인들과 헬라적인 사상을 반영한 것으로 ‘영적으로 악한 존재(the spiritual being of evil)’로 이해된다(Arnold, 1989: 69).

이러한 영적인 악한 능력들은 6장 12절에 드러나 있다. 지금 현재 믿는 자들의 싸움은 단순히 인간의 육적인 연약함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이면에서 정사와 권세를 주관하는 어둠의 세력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다(엡 6:12). 그러한 세력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는 ‘이미(already)’ 이루어진 것이지만, ‘아직(not yet)’

완성된 것은 아니다. 믿는 자들이 현재 겪는 어둠의 세력들과의 전쟁은 그들이 종말적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지속된다(O'Brien, 1999: 458).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완성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영적 전쟁이 계속 되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영적 전쟁에 대비하여 전신갑주를 취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엡 6:11).

(5) 거룩한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엡 4:4-16)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 실제적인 통치라는 개념과 연관되지만, 또한 그 백성들의 공동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주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의 백성들 안에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왕권이 실제로 실행되는 것이 드러날 수 있는 영역으로서 그를 왕으로 인정하는 백성들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Marshall, 1992: 123).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개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마 13:44) 궁극적으로 공동체를 위한 것임이 드러나고 있다(눅 13:32). 예수님의 메시지는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으며,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변화와 부흥이었다(Ladd, 1974: 250). 예수님은 단순히 한 개인의 변화가 아니라 -물론 개인의 변화를 통해 공동체가 변화되는 길로 가는 것이겠지만- 언제나 공동체로서 하나님 백성들의 변화에 관심이 있었다.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공동체를 상징하는 다양한 이미지들이 자주 사용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적은 무리들(눅 12:32)”이 되었고,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가족이라고 불렀다(막 3:34-35). 이 공동체 안에서 제자들은 서로 형제, 자매가 되었다(Marshall, 1992: 123).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윤리 또한 개인적인 행위에서 비롯되지만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동체와 연합되어야 함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Hurst, 1992: 221).

바울 또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the body of Christ)’이라는 비유를 통해 설명되고 있다(엡 1:23; 4:1-16). 이 그리스도의 몸은 직접적으로 이 땅의 교회를 의미한다(엡 1:23). 바울의 또 다른 서신서들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비유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학자들은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일반

적으로 두 가지 의미로 축약될 수 있다. 첫째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 된 성도들과의 유기적 연합이며, 둘째는 한 몸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지체들에 대한 강조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양한 구성원들 간의 상호의존적인 관계성과 서로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롬 12:4-5; 고전 12:14-16)(Fung, 1993: 77-78). 에베소서 4장 12절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몸”은 11절에 제시된 교회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가진 성도들이 그의 몸을 세워가기 위하여 서로 섬기고 연합해야 함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다. 특히 12절에서 “세워져 가고 있다”는 동사는 교회 공동체가 끝없이 움직이고 변화 성장해가는 유기체의 이미지로 제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O'Brien, 1999: 305).

이 성장의 목표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엡 4:13)”이며,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서로에 대한 약의를 가지고 서로를 잘못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때 가능하다(엡 4:13-15).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그 백성들 간의 유기체적 공동체를 필수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라는 전제하에 서로간의 화해(reconciliation)와 연합(unity)을 이루어 갈 것을 명령받고 있다. 이 한 몸을 이루어 하나로 연합되는 과업은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실행될 수 있으며, 동시에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하는 동기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엡 4:3-4; Fung, 1993: 80).

(6) 하나님 나라에서의 화해(Reconciliation)(엡 1:9-10)

종말론적 구원(eschatological salvation)은 육체적 인간의 구속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파괴된 하나님과 인간들 간의 관계회복을 가져온다. 예수님의 임무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적 차원에서의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지금 현재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관계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회복된다. 종말론적 완성을 기대하면서 지금 현재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누리는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과 함께 잔치에서 식탁을 대하는 ‘식사 교제(table fellowship)’의 비유를 통해 그 의미가 잘 드러나고 있다(마 8:11; 22:1-14; 눅 13:29). 잔치에 대한 비유는 종말론적 구원에 대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관념에 기초하고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 간의 교제는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친교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다(Ladd, 1974: 210).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죄인들의 친구였으며(마 11:19),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친교를 누리도록 만든 것이다.

또한 현재의 구원은 단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기도 하다. 메시아적인 구원에 있어서 죄의 용서는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친교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인간은 그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었다고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그의 백성이 된다. 그러므로 죄인들이 그 죄를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개념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신성한 용서가 인간들 간의 용서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 하나님의 용서가 아무 대가없이 선물로 자유롭게 주어 진 것이기에, 사람들도 서로 용서하도록 요청받게 된다(Ladd, 1974: 215). 따라서 십자가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통한 하나님과 인간 간의 화목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의 화해를 가져오고,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로 통합되게 만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우주적 화해와 연합이 에베소서 전체의 주제를 요약한 것이자 가장 중요한 주제의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것은 먼저 1장 9-10 절, 즉 하나님께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는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게 하려는 것이라는 바울의 선포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여기서 ‘모든 것들이 함께 연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절정을 이루는 내용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로 연합하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엡 1:10)”이라는 구절에서 강조된다(O’Brien, 1999: 58-60).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우주적 연합이 에베소서에 나타난 ‘비밀’에 대한 가장 우선적이고 적합한 표현인 것이다(Heil, 2007: 3).

모든 것을 연합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즉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이 되게 함으로서 죄로 인해 막혀있던 양자 간에 화목을 이루어내셨다(엡 2:16; 3:6).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두 집단을 분리시키고 서로를 향한 그들의 적대감을 부추기는 장애물들을 제거하였다(엡 2:12-18; Arnold, 1993: 247).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간’이 된 유대인과 이

방인들 간의 화해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즉 그 뜻의 비밀을 완성하기 위한(엡 1:9-10) 구체적 실행이자 그 완성이로 나가는 실제적 단계였다.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서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내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함께 그의 백성으로 부름으로써 이 땅에 존재하는 두 개의 적대적인 세력들 간의 화해를 이루어낸 것이다(O'Brien, 1999: 62).

에베소서 3장 9-10절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에 초점을 두고 있는 핵심구절로서 하늘과 땅의 두 영역과 두 실체, 즉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들과 정사와 권세들을 보여 주고 있다. 이 구절들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완성되는 것, 즉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연합하고 하나되는 것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엡 1:9-10). 하나님의 백성들 간(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완성을 향해 가고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연합을 시작하셨고, 이 화해의 행동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엡 2:18; O'Brien, 1999: 63-64).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기초하여 궁극적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이 화해하고 연합하며 죄인되었던 인간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만든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갖는 그 궁극적 목표와 본질적 특성들이 그 백성들의 구체적 삶의 방식, 즉 윤리적 형태를 규정하는 것이다.

IV. 에베소서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윤리

1. 하나님 나라에서 윤리의 기초가 되는 새로운 자아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 특성과 그 안에서의 윤리적 삶이라는 것을 놓고 볼 때,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그 나라의 윤리적 내용과 조건을 규정 짓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새로운 정체성에 의해 정의되고 실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구절이 에베소서의 두 부분, 즉 신학적 부분인 1-3장과 윤리적 부분인 4-6장을 연결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법적 연결고리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행하신

일 때문에 그들은 찬양과 감사라는 실제적인 삶의 방식으로 반응하도록 요구받는다(Mouton, 2002: 59).” 그러므로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적 삶에 있어서 핵심적 측면은 바로 그들의 정체성, 즉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하는 점이었으며, 이 정체성 안에서 바로 윤리적 행동 강령이 주어졌다. 그들에게 있어서 윤리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것이었다(Ibid, 44).

바울 서신서에서 성도들의 새로운 정체성은 ‘새 사람(the new self)’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새 사람은 각 사람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함으로써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렇게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은 성도 외부로부터 각 사람에게 주입되어서 개발되는 초월적인 흐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서 각 사람의 심령이 내 부적으로부터 새롭게 됨으로서 이루어진다. 즉, 각 사람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의 새로운 자아로 거듭나는 것이다(Ridderbos, 1975: 253). 이 새로운 자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윤리의 내적인 기초가 된다.

여기서 ‘새 사람’이라는 개념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나타나는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0절에 나타나는 ‘새 사람’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새 사람이 되는 과정을 가장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는 고린도후서 3-5장에 의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각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영, 곧 살리는 영으로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피조물은 각 사람의 심령으로부터 베일을 벗겨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참된 지식을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하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다(고후 3:6; 4:6). 그리고 각 사람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함으로써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선포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즉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Harris, 2005: 432). 이러한 연합의 시작은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과정에서 성령의 사역은 필수적이다(고후 3:16-18; 4:6).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함으로써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법칙은 에베소서에서도 동일하게 그려지고 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

도들을 당신의 자녀로 불렀다는 것과 허물로 인해 죽었던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엡 2:1-5). 즉,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구원은 성령에 의해 인치심을 받는다(엡 1:13). 또한 에베소서 4장 24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는 구절은 골로새서 3장 9-10절에 나타난 같은 구절을 연상시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죽음을 경험함으로써 옛 본성은 부서진다. 이제 그들은 새 사람으로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러나 ‘의에 대해서는 살아난’ 자들이 되는 것이다(Bruce, 1984: 141).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새로운 자아가 하나님 나라의 윤리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는 내적인 기초가 되는 것이라면,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 속성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삶을 지속적으로 실천해가면서 그 나라의 완성을 갈망하게 하는 윤리의 외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이라는 말은 회심한 성도들의 변화된 본성을 강조하는 것이며, 새로운 자아는 새로운 본성을 가진 영적 존재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옛 사람’과 ‘새 사람’은 변화되기 전과 변화되고 난 이후의 성도들의 전체 상태를 보여주는 개념이 된다(Barrett, 1997: 174; Harris, 2005: 434). 옛 사람은 이 세대의 법칙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반면, 새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의 일환으로서 다가올 세대의 삶에 지배를 받는다. 따라서 새로운 인간은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된 자로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합하게 만들며, 앞으로 시작될 새로운 질서에 대한 포괄적인 그림을 대표하고 있다(O’Brien, 1999: 331).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새로운 주체가 갖는 내적 정체성과 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를 바라보며 이 주체가 나가야 할 목적과 방향에 의해 그 본질적 내용과 형태가 규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직설법과 명령법의 관계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이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과 새로운 삶을 사는 것에 대한 관계는 바울 서신서에 나타난 직설적인 화법(핵심적인 신학적 내용을 선포하는 문체)과 명령적 화법(특정 범주에 대한 행동적 실천을 요구하는 문체) 간의 변화에서 감지할 수 있다. 바울 서신서에서 이 직설법과 명령법이 교차되는 것은 빈번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로마서 6장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과 관련 하여,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임을 선포한다(롬 6:2). 이러한 신학적 선포는 곧 바로 그것에 대한 인간의 반응과 책임을 촉구하는 것으로 나아간다(롬 6:12, 13). 또한 골로새서 3장에 나타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에 대한 이러한 직설적 화법은 죄에 대하여 싸울 것을 권하는 명령적 화법과 곧바로 연결된다. 즉,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취었음이니라(골 3:3)”라는 선포는 곧 이어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주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이라(골 3:5)”라는 반응을 촉구하는 것이다(Ridderbos, 1975: 253-254).

바울 서신서안에 나타나는 이러한 문체적 특성을 ‘새 사람’이라는 개념과 연관해 볼 때, 그의 신학적 직설화법은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간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엡 2:15; 4:24; 골 3:10). 그리고 이러한 신학적 선포 다음에는 성도들에게 그러한 진리에 대한 합당한 반응, 즉 ‘새 사람을 입을’ 것을 요구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엡 4:24; Bruce, 1984: 358). 이는 기독교인이 새 사람으로서의 성도들의 정체성 형성에 중심이 되고 있으며, 그렇게 형성된 성도들의 새로운 정체성이 그들 삶의 윤리적 기초와 동기를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준다(Darko, 2008: 111).

바울이 기본적인 신학적 내용을 선포한 다음에 언제나 “그러므로(롬 6:12; 12:1; 골 3:5; 3:12; 엡 4:25)”라는 표현과 함께 명령적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은, 각 경우에 새로운 삶에 대한 부르심은 구원 사역에 대한 신학적 선포를 하고 있는 직설적 화법 다음에 ‘결과’로서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명령법은 그 앞에 나타난 신학적 진리를 선포하는 직설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 질서는 결코 뒤바뀌어 나타나지 않는다. 더구나 구체적 행위를 요구하는 명령법은 신학적 직설법이 표현하는 새로운 삶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기능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이 신학적 직설법에 나타난 그 새로운 인간이 진정으로 되었는지 아닌지를 지속적으로 판가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는 것이다(Ridderbos, 1975: 254-255).

이러한 직설법과 명령법의 관계는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현재의 구속사적 맥락에 의해서도 묘사될 수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긍정적인 것을 말하는 것과 동시에,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이다(Ibid, 258).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새로운 삶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그 완성을 향해 지속적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그대로 반영한다. 그리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현재의 완성되지 못한 삶이 바로 이 땅에서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영적 전쟁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3. 새로운 삶의 본질적 특성

바울 서신서안에 나타나는 직설법과 명령법의 관계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윤리적 삶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 특성에 의해 규정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에베소서에서 성도들의 윤리적 삶의 기초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사역을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 사역을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모든 중요한 요소들에 근거하고 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구원론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적(Christ-centered)이며 그 원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고 있다.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은혜에 근거한 성도들의 새로운 삶의 구체적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질문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첫째, 에베소서에서 증거하고 있는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둘째, 성도들에게 기대되는 선하고 도덕적인 ‘행동’은 무엇인가? 셋째,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이루어가야 하는 선하고 도덕적인 ‘사회’는 어떤 것인가?(Mouton, 2002: 223).

이상의 세 가지 질문에 기초하여 정리해보자면 첫째, 에베소서에서 증거하고 있는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믿음으로 동참함으로써 거듭난 자이다. 그들은 성령의 사역을 통해 그 심령이 새롭게 창조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다(엡 4:24).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은 골로새서 3장 10절을 연상시킨다. 골로새서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신성한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지식을 획득해 가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롭고 거룩한 분임을 아는 것이 곧 그들도 하나님처럼 의롭고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Bruce, 1984: 359).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선한 성도들에 대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엡 4:13)” 자라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갈 수 있는 길, 즉 “온전한 사람

(엡 4:13)이 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만(엡 4:13)” 하는 것이다. 이 말은 결국 인간이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성장하여 그 아름다움을 삶으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드러낼 수 있을 때에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며, 이것은 곧 온전한 인간으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전, 곧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으로 이어져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다(엡 2:21-22).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야 하는 것을 요청받음에 따라 그들의 새로운 삶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엡 4:21-24). 그리스도가 새로운 삶의 역할 모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은 오로지 예수를 닮아가도록 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무엇인가?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8절에 그에 대한 하나의 답을 제시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따라서 성도들은 그분의 겸손과 순종과 희생의 삶을 본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란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도들 마음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어 그들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다(Grenz, 1997: 145). 따라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엡 5:18).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의 사역이며, 지속적으로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도 성령의 다스림에 순응할 때에만 가능하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통제하도록 허락함으로써(골 3:16) 지혜롭게 살아가야 한다(엡 5:15; O'Brien, 1999: 393-394).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님께 의존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변화된 삶을 영위해갈 수 있게 하는 핵심 요인이며, 그리스도를 그대로 본받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에도 자신의 신성을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을 따라 행하셨기 때문이다(마 12:28; 막 12:29; 눅 4:18-19; 요 14:31).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을 대적하고, 귀신을 내어 쫓으며 질병을 치유하는

기적을 행하신 것은 물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그 능력을 따라 행하심으로 가능했던 것이다(Ewert, 1983: 58).

따라서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그들의 새로운 삶과 관련된 모든 삶의 방식에서 오로지 성령님께 의존함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에베소서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사랑, 정직, 겸손, 인애, 상호 복종, 진리, 지혜와 같은 덕목들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또한 그들은 적대감, 분쟁, 분노, 이기심과 탐욕이 없고 부도덕한 행위와 어리석은 말들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엡 5:3-5; Mouton, 2002: 224).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에 제시된 성령의 열매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의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이렇게 성령 안에서 새롭게된 자아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곧 선하고 도덕적인 인간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

둘째, 선하고 도덕적인 행위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새로운 자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는 것이며(엡 4:24), 그리스도가 그 역할 모델이 될 때, 새로운 사람의 행위는 그의 새로운 지위나 신분과 일치해야만 한다(O'Brien, 1999: 332). 따라서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한 것처럼(엡 4:32)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한다. 그들은 외국인이나 이방인,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과 긍휼로 용납해야 한다.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의 장점이나 그들이 한 어떤 일들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들의 정체성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만 한다(Morris, 1994: 154).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도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윤리가 갖는 핵심은 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Grenz, 1997: 134). 그것은 아무런 대가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고 사랑해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의 법칙에 근거하고 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들의 회심이 진정이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결과이며, 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야말로 현재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원이자 힘이 된다(Pannenberg, 1952: 112). 새로운 사람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에서 복종한다(엡 5:21). 즉, 성도들의 윤리성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도들의 모든 행동은 성령에 의한 그들 심령의 급진적 변화에 따른 것이다. 성도들의 내면적인 마음을 새롭게 하는 성령이 각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및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게 만든다. 성령에 의하여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이루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게 된다(엡 4:3-4; 10-16; Stott, 1979: 150).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와 연합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 특성으로 드러난 것처럼, 성도들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를 용납하고 하나로 연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선한 삶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삶이요, 왕 되신 그분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삶이다(Grenz, 1997: 133). 그것은 곧 용서와 사랑, 화해와 연합을 이루어가는 삶인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바울은 선한 행위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인간의 한계와 실패하기 쉬운 연합함, 그리고 악한 욕망과 충동으로 이끌려가기 쉬운 인간의 성향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영적 전투는 단순히 성도들 개인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문제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양한 구성원들이 가지는 관계적 어려움에서도 비롯된다. 그러므로 바울은 공동체 안에서 끝없이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하나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것을 권면하고 있다. 더 나아가 영적 전투의 또 다른 차원은 구원의 종말론적 완성이 이루어지기까지 성도들을 향한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의 끝없는 유혹과 방해가 존재한다는 것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이 땅에서 선하고 도덕적인 삶,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추구하는 삶은 영적 전쟁을 반드시 수반하게 된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은 싸움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바울은 성도들에게 마귀의 꾀계를 대적하고 정사와 권세에 대항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엡 6:10-13; Mouton, 2002: 224).

셋째, 하나님의 대안적인 선하고 도덕적인 사회 또는 세상은 서로 대적하던 적들이 평화적 화해를 이루는 곳으로 이해되어진다.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는 인종과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냈다(Darko, 2008: 110). 새로운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법, 즉 그의 급진적 사랑, 용서, 평화, 의로움과 거룩함에 의해 통치된다. 그 공동체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는 곳이며(엡 1:10:22), 모든 세계가 그리스도의 임재로 충만한 곳이다(엡 4:10).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를 통한 삼위일체의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임재하심, 그리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 찬미하심의 구체적 체현으로 인해(엡 1:23), 세상은 분명히 사랑, 평화, 연합, 공흥, 존중, 친절, 인내, 용서, 정의, 평등, 소망 등과 같은 것들에 의해 움직이게 될 것이다. 이는 동시에 서로간의 장벽이 없고, 갈등과 적개심, 폭력, 억압적 지배가 사라진 것을 의미한다(Mouton, 2002: 225).

이상에서 에베소서가 말하는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도덕적 행위와 도덕적 사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에베소서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윤리에 대한 중요한 한 측면은 그것이 공동체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가족,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 이해되고 있다. 에베소 성도들의 윤리적 삶에 있어서 ‘그들이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은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의 윤리성과 분리되는 문제가 아니었다. 대신 윤리와 도덕성은 공동체의 삶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되어지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윤리적 지침이 바로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윤리적인 삶은 결코 고립된 개인에 의해 결정되고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곧 윤리적 행위를 결정하는 기초가 서로간에 공유된 기억, 진리, 임무,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적 삶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윤리는 추상적 아이디어나 윤리적 강령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변증적이며 은유적 과정들 안에서 도덕성을 형성해가는 상호 소통적인 네트워크(Mouton, 2002: 45)”로 이해되어졌다. 에베소서 5-6장에 제시된 윤리적 삶에 대한 명령들이 모두 관계(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 속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윤리적 삶이 갖는 공동체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하나님의 구속적 사역 안에서 그것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다는 측면에서 ‘아직은’이라는 역설적 구조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구상에서 이 세상의 대안적 형태로 제시되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도의 윤리적 삶의 실현은 그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설명되고 있는 만큼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은 이미 지적하였다. 따라서 성도들은 그들이 윤리적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한다(엡 5:18). 성령으로 충만하게 됨으로써 성도들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뿐만 아니라 서로간에 화답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증명할 수 있게 된다(Heil, 2007: 230). 이러한 노력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불완전한 것이 무너지고 온전한 것이 세워지고 완전한 선과 도덕이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윤리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이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의 가르침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윤리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과 분리되지 않는다. 이 두 가지의 연관성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내용을 규정짓는다. 윤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나 수단으로 이해되어져서는 안된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윤리적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동적 행위 그 자체이다.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에 근거하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윤리를 형성해가는 동기가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시고 아무런 대가없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먼저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되도록 부름받았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도덕적 삶을 실천해가는데 있어서 우리 주인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 비록 그리스도가 우리의 적, 악의 세력을 정복하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이 어두운 세상과 싸우고 씨름하는 것을 경험한다. 그러나 우리는 윤리적 삶을 위한 투쟁 속에서도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완성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의 윤리에 대한 이러한 이해가 주는 유익성은 그것이 인간 윤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인간 역사에 있어서 인간 윤리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인간 존재의 외부적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어떤 것들이 윤리적 미덕인지에 대한 범주들을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반면,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인간 윤리의 근거

로서 먼저 인간 내면의 마음이 변화되고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에 초점을 돌리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윤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새로운 자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은 인간 존재의 기원과 그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윤리에 대한 이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대답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선하고 도덕적으로 살아야만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대답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은혜, 사랑, 용서의 법칙에 의해 다스림을 받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에 대한 가르침은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자기 개인의 의로운 행위에 윤리의 근거를 두고 있는 지금의 포스트모던 사회의 도덕 형성에 대해 강하게 도전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 윤리에 있어서 도덕성 형성을 위한 공동체적 네트워크는, 개인적 결정에 의존하고 있는 포스트모던 사회의 윤리적 성향에 매우 강한 도전을 주고 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에 대한 성경적 원칙을 다시금 확실히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윤리적 법칙을 추구하고자 하는 동기와 힘을 제공할 수 있다.

윤리의 목적과 관련해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 윤리의 역할 모델이 된다. 따라서 세상의 윤리는 인간의 권력과 법에 기초하고 있는 반면, 하나님 나라 윤리는 섬김에 기초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섬긴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피차간에 복종해야 한다. 이러한 은혜와 사랑, 용서와 섬김의 윤리는 이 시대가 가진 이기적이고 지배 중심적인 행위에 도전을 주는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이 세상에 보여주어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윤리를 실천해가는 삶은 투쟁과 갈등 한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왜냐면 그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의 현재적 삶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완성되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윤리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우리로 하여금 선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에 의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도록 한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롬 14:17).” 우리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도록 허락할 때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 삶속에 역사하는 하늘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명해 보일 수 있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길 원하신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 특성과 그 윤리적 삶이 갖는 내용에 대해 바르게 배워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Arnold, Clinton (2002). *Ephesians and Colossians*, in *Zondervan Illustrated Bible Backgrounds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 Arnold, Clinton (1993). "Ephesians, Letter to the" *Dictionary of Paul and His Letters*, ed. Gerald F. Hawthorne, Ralph P. Martin, and Daniel G. Reid. Leicester: England. IVP. 238-249.
- Arnold, Clinton (1989). *Ephesians: Magic and Pow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rnett, Paul (1997). *The Second Epistle to the Corinthians*, in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ed. Ned B. Stonehouse, F. F. Bruce, and Gordon D. Fee,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 Bock, Darrel (2001). "The Kingdom of God in the New Testament Theology." *Looking into the Future*. ed. David W. Baker, Grand Rapids: Baker.
- Braaton, Carl E (1974). *Eschatology and Ethics*, Minnesota: Augsburg Publishing House.
- Bruce, F .F. (1984). *The Epistles to the Colossians, to Philemon, and to the Ephesians*, in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ed .F. F. Bruce. Grand Rapids: Eerdmans.
- Caragounis, C. C. (1992). "Kingdom of God/Heaven." *Dictionary of Jesus and the Gospels*. ed. Joel B. Green, Scot McKnight, and I. Howard Marshall, Leicester. England: IVP. 417-430
- Chilton, Bruce and J. I .H. McDonald (1987). *Jesus and the Ethics of the Kingdom*.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 Cho, Youngmo (2003). "Spirit and Kingdom in Luke-Acts: Proclamation as the Primary Role of the Spirit in Relation to the Kingdom of God in Luke-Acts." *AJPS* 6:2.
- Darko, Daniel K. (2008). *No Longer Living As the Gentiles*. New York: T&T Clark.
- Ewert, David (1983). *The Holy Spirit in the New Testament*. Pennsylvania, Kitchener Ontario, Scottdale: Herald Press.
- Fung, R. Y. K (1993). "Body of Christ." *Dictionary of Paul and His Letters*. ed. Gerald F. Hawthorne, Ralph P. Martin, and Daniel G. Reid. Leicester. England: IVP. 76-82.
- Grenz, Stanley (1997). *The Moral Quest*. 신원하(역). 『기독교 윤리학의 토대와 흐름』. 서울: IVP, 2001.
- Harris, Murray J. (2005). *The Second Epistle to the Corinthians* in *The New International Greek Testament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 Heil, John Paul (2007). *Ephesians: Empowerment to Walk in Love for the Unity of All in Christ*.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 Hurst, L.D. (1992). "Ethics of Jesus." *Dictionary of Jesus and the Gospels* ed. Joel B. Green, Scot McKnight, and I. Howard Marshall, Leicester, England: IVP. 210-222.
- Kreitzer, L.J. (1993). "Eschatology." *Dictionary of Paul and His Letters*. ed. Gerald F. Hawthorne, Ralph P. Martin, and Daniel G. Reid. Leicester, England: IVP. 253-269.
- Ladd, George Eldon (1974). *The Presence of the Future*.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 Marshall, I. H. (1992). "Church." *Dictionary of Jesus and the Gospel*. ed. Joel B. Green, Scot McKnight, and I. Howard Marshall. Leicester, England: IVP. 122-125.
- Moore, Russell (2004). *The Kingdom of Christ*. Wheaton, Crossway Books.
- Morris, Leon (1994). *Expository Reflections on the Letter to the Ephesians*. Grand Rapids: Baker.
- Mott, S.C. (1993). "Ethics." *Dictionary of Paul and His Letters*. ed. Gerald F. Hawthorne, Ralph P. Martin, and Daniel G. Reid. Leicester, England: IVP. 269-275.
- Mouton, Elna (2002). *Reading a New Testament Document Ethically*.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 O'Brien, Peter T. (1999). *The Letter to the Ephesians*.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 Pannenberg, Wolfhart (1952). *Theology and the Kingdom of God*.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 Ridderbos, H. (1975). *Paul: An Outline of His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 Stott, John R.W. (1979). *God's New Society: The Message of Ephesians*. Illinois: IVP.
- Seifrid, M. A. (1993). "In Christ." *Dictionary of Paul and His Letters*. ed. Gerald F. Hawthorne, Ralph P. Martin, and Daniel G. Reid. Leicester, England: IVP. 433-436.
- Stacey, W. David (1956). *The Pauline View of Man: In Relation to its Judaic and Hellenistic*. Background, London: MacMillan & Co Ltd.
- Stassen, Glen H. & David P. Gushee (2003). *Kingdom Ethics: Following Jesus in Contemporary Context*. Illinois: IVP.

ABSTRACT

The Kingdom of God and Ethics in Ephesians

Kyung Sook Yoon(Jenju University, a part time professor)

This study is to reconstruct the biblical concept of Christians ethic. It is necessary that the study of Christian ethics should understand the concept of the Kingdom of God, because Christian ethics are the ethics of His kingdom. The characteristics of the kingdom of God prescribe and define the contents of Christians ethics. Thus, this study focu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ingdom of God and ethics to show the essence of Christians ethics, as specifically described in the teaching of Ephesians.

Key Words: Christian ethics, The kingdom of God, In Christ, New Self, the Christ likeness

